

# 주간기도정보

2024. 5. 7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 ‘교권, 학습권 추락 원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되어야’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3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충남도의회에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주로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10여 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평가”라며 “우선은 학생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권이 추락했고, 학습권도 현저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 가운데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폐지해야 할 상황에 왔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을 위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각각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교육 3주체가 조화롭게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교육의 주체이거나 혹은 참여자 모두가 권리를 갖고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이나 정치권 야당 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잘못된 규정이라면 바꾸고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잘못된 법으로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한쪽의 과도한 권리 주장으로 오히려 보편적인 인권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뿐만이 아니라 자의적 인권 적용으로 학교 공동체를 황폐케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언론회는 “현행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부적, 보편적 상호 존중의 인권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천부적 인권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게 적용해야 할 인권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행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는 상대적이고 자의적 인권이라고 한다”며 “상대적 인권의 기원은 칼 마르크스(Karl Marx)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대적 인권의 핵심이 ‘소수자’이고, 학생인권조례의 핵심도 ‘소수자’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둘째, 학생들에게 자의적인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들어 있는 여러 조항 가운데,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은 자의적인 인권으로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셋째, 정치가 학교 교육에 끼어 들고 있다”며 “학교에는 학교 구성원 사이에 이미 규약이 있다. 즉 학칙이다. 그 학칙에는 학교와 학생,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이 들어가 있다. 각 학교는 자유롭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면학을 지켜나 가면 된다. 그런데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이념을 대입시켜 교육 현장을 혼란케 하고, 심지어 피폐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교육을 사랑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통해 국가의 밝은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주의, 공포주의, 혼란주의, 사회주의, 일방주의, 성정치주의, 규례만능주의를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경도(傾倒)된 정치와 이념의 희생물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출처: 기독교일보 종합).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시편 119:160-161)**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느헤미야 4:11)**

하나님, 무엇이 바른길인지 듣지 못한 채 학생인권조례에 매여 어둠의 길로 인도되고 있는 다음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사 이들을 위해 교회가 일어서야 할 때임을 봅니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학생 인권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죄악을 권리로 보호하려는 사탄의 간계를 드러내사 이 땅 모든 곳에서 악법의 조례가 폐지되게 하여 주소서. 왜곡되고 거짓에 치우쳐 의인을 박해하는 악한 시대 속에서 의롭고 참되며 영원하신 주의 진리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복음의 군사로 깨어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힘써 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리가 생명 되어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예수교회로 말미암아 다음세대와 모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등불을 비추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 “옛 사람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북, 여성 차별과 인권 유린 만연...지원 필요도 못 느껴**

북한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검토 보고서 세미나 개최



북한에서 성매매 처벌이 여성에 한정되는 등 성차별적 법·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4월 30일 오후 「북한의 CEDAW 이행을 위한 검토 보고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은주 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은 2001년 CEDAW에 가입했지만, 2002년 첫 보고서와 2016년 2-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했을 뿐 아직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북한이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북한의 여성 차별에 대한 인식은 국제 사회 정의와 차이가 있다”며 “북한은 여성을 개별 주체가 아닌 국가의 구성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서 여성의 권리는 국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수령이 선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여성의 임무는 수령에게 충성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매음죄’, 즉 성매매 처벌 대상을 법 시행 규정에서 여성으로 한정해 두고 있다”며 “남성의 경우 성매매 알선죄를 처벌하지만, 현장에서 성매매 주된 처벌 대상은 여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절대다수 또한 남성”이라며 “북한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 동원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동맹은 여성의 권리를 대변하기보다 국가의 정치조직으로 역할을 하며, 무보수 강제노동 참여, 각종 명목으로 돈과 물자 제공을 강요당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북한 남성이 사회적 지위 상승에 필요한 비용은 여성이 버는 돈으로 충당되는데 이를 위해 여성은 자신의 교육과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있다”며 “여성 노력의 대가가 남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이라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가정폭력이 흔하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 폭력자에 대한 법적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도 낮아 성폭력을 큰 범죄로 생각하지 않아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하다. 당국은 그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기관, 기업 단체에서 여성 간부가 과거에 비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성 간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고, 권력의 핵심부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다”고 했다. 고용 면에 있어서 “여성은 주로 농업, 제조업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이 어렵고 힘든 오지로 진출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 공장과 농촌에는 여성을 위한 복지 시설이 거의 없다”며 “그러면서 국가가 맡아야 할 취약계층의 생계보장 책임을 여성에게 맡기고 있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법령과 탈북민 대상 심층 인터뷰 및 설문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오는 11월 예정인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UPR)를 앞두고 시민사회 보고서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연합뉴스 종합).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에베소서 4:22-24)**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고린도전서 12:12,23,25)**

하나님, 여성을 지체와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도구로서 희생만을 강요하는 차별과 만연한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썩어져 가는 구습과 같은 잘못된 사상과 체제로 이 나라가 특정 계층을 위한 탐심으로 끝나지 않도록 위정자들의 이기심과 교만함을 꾸짖어 주시고 마음을 겸손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권리와 질서를 진리 안에서 세워 연약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복음으로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북한에 이미 샘플과 같이 세워두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영혼을 세우는 통로 되게 하시고 참된 자유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태아는 가장 작은 어린이’...태아 생명의 소중함 알린다

아름다운피켓, 오는 4일 ‘어린이날 생명축제’



장애가 있는 태아라도 생명은 소중하다는 메시지가 젊음의 거리, 신촌에 울려 퍼졌다. ‘2024 아름다운피켓 어린이날 생명축제’가 4일 신촌 현대백화점 유폴렉스 앞 광장에서 개최됐다.

아름다운피켓(대표:서운화)이 어린이날을 기념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생명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태아도 어린이예요: 장애가 있어도 소중해요’라는 주제로 열렸다. 행사 부스에는 아름다운피켓,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 다음세대교육연구소, 카도쉬아카데미, 한국

청년생명윤리학회 등이 참여했다.

2024년 전 세계 낙태된 태아의 수는 4천460만 명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는 2019년 2만 7천 건에서 2020년 3만 3천 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더욱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아름다운피켓 이사 김준일 교수(연세대)는 “10년 전, 우연히 낙태 수술로 태아가 죽는 과정을 보게 되면서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라는 신앙적 소명을 갖게 됐다”며, 캠페인을 통해 ‘태아도 어린이예요’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장애를 가진 태아도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더욱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기를 기대했다.

아름다운피켓 서윤화 대표는 “어린이는 생명이며 보호해야 할 존재라고 인식하지만 ‘태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또 장애 문제로 고민했지만, 막상 낳아보니 정상아인 경우도 많이 있다”며 “장애아로 태어난다 해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태아 중에서도 장애아, 그중에서도 다운증후군 장애 판정을 받은 태아의 낙태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다운증후군을 판정받는 산전 검사는 태아와 여성 모두에게 위험성이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이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름다운피켓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을 비롯해 어린이날, 각종 기념일마다 젊은이들의 거리에서 ‘생명 존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출처: 아이굿뉴스 종합).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 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 이다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시편 139:15-16,19)**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5-16)**

하나님, 낙태를 자유와 권리로 주장하며 죄를 합리화하고,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이 세대에 진리를 아는 자들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듯 보이지 않는 태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일한 생명임을 알아 주님을 경외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부모세대가 태아의 형체가 온전치 않은 시기라도, 혹 연약한 신체 조건이 판단되어도 인생을 위하여 모든 날을 이미 정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낳아 자녀를 지키게 하소서. 잉태된 다음세대들이 온전히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누리기까지 주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들로 일으켜 주옵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